

세상의 슬픔과 고통 껴안고 싶은 시인의 기도

시는 기도다

임동혁 지음



'시는 기도다'를 펴낸 임동혁 시인은 산문집에 실린 글 '미완의 완성지 운주사의 새벽'에서 자신의 시 '시간의 힘-다시 운주사'를 언급하며 운주사의 천불천탑 신화를 떠올린다. 화순 운주사 외물.

시인은 20년만에 나온 두번째 산문집의 제목을 '시는 기도다'라고 지었다. 문학평론가 김현이 남긴 '시는 외침이 아니라 외침이 터져 나오는 자리'라는 정의에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던 그는 최하림 시인이 딸에게 건넨, "시는 기도"라는 말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래서 그는 "한 그루 나무처럼 결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외침이 터져 나오는 자리'에서 들려오는 무언의 말이 기도"라고 한 편의 시"라고 적었다.

시집 '매장시편', '운주사 가는 길',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를 때' 등을 펴낸 시인 임동혁이 산문집 '시는 기도다'를 펴냈다.

이번 산문집은 시란 무엇인지, 시는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고민해온 내용이 담긴 '시론(詩論)'이자, 시인의 시선을 따라 떠나는 여행기이자, 예술론이다.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응답해 작가가 풀어놓은 '시론(時論)'이기도 하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당대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자 기능자로서 내심 문학적 스승으로 삼아왔던 김수영을 비롯해 윤동주, 김중삼, 최하림, 기형도 시인 등의 시와 산문 등을 통해 당대 현실의 문제점과 대안을 개진했다.

2부에서는 '시인' 임동혁과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그는 "1980년 5월의 비극이 공허한 언어사태 속에서 휘발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와 염려 속에서 '씨내려간 대표작 '매장시편'은 '나를 앞으로 끌여가는 바람 앞의 돛'이자 언제나 그 새로운 항구를 향

한 출항을 잡아끄는 무거운 '돛'이라고 고백한다.

또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며', '가수의 노래에 술잔이 금가고', '고요는 힘이 세다' 등의 대표작과 관련한 시작노트는 시의 탄생과 관련한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그밖에 시 '복면시대'의 한 부분, '복면을 하자, 문득 기적처럼 깨어나도록'을 제목으로 삼은 2006년 인터넷 시인의 삶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3부에는 광주, 안좌도, 운주사, 해남으로 이어지는 여행기와 예술론이 담겼다. 그는 수화 김환기의 그림에서 '낮선 것과 고유한 것 사이의 창조적 대결'을 보았기에 그의 고향 안좌도를 찾아 떠났고, 안좌도 읍동항에 들어서던 석양녘, 앞바다의 잔물결마다 반짝이는 황금빛 운슬을 보면서 김환기의 트레이드 마크인 점화(點畵)의 비밀을 깨닫는다.

또 천불천탑 이야기가 깃든 화순 운주사의 새벽을 노래하며, 땅끝으로 떠난 해남여행에서는 김지하의 시 '그 소, 애린 50'을 소환한다.

그밖에 강연군의 작품에서는 "보잘것 없는 삶의 외로움과 동경을 되찾아주고 서로 위로를 해주는 데서 오는 어떤 존재감을 느끼"고, 김호석의 수목화에서는 상대편이 갖고 있는 고통과 위험을 나의 위험이라 여기는 "따스하고 습기 어린 눈물을 머금은 화가의 눈"을 본다.

4부에는 격동하는 현실과 전망이 부재한 시대적 혼돈 속에서 인식하는 사유와 더불어 비판과 성찰을 담았다.

탐욕의 시대에서도 "늘 그자리에서 두 팔 벌려 제 아이들을 껴안고 있는 듯한 무등산"을 노래하고, '자발적 가난과 예술가의 길'에 대해, 광주의 오월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푸른사상·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100년 체력을 위한 달리기 처방전=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사람들의 신체 활동이 줄면서 비만, 당뇨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는 2030년까지 운동부족으로 발생할 질병이 5억 건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어느 때보다 몸과 정신의 건강 중요성이 높아진 지금, 저자는 천천히 달리기 얼마나 유효한가를 말하고 있다. <현익출판·1만8000원>



▲어느 페르시아인의 편지=프랑스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시대 대표 사상가인 몽테스키외의 소설. 근대 법치국가 정치 이론에 영향을 준 '법의 정신'으로 알려진 몽테스키외는 소설가보다는 법조인, 철학자,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30대 초반 나이에 프랑스 문명계를 흔들었던 시간대 풍자소설인 작품은 예리한 분석과 언어유희, 번뜩이는 기지가 특징적이다. <문학과지성사·2만4000원>

▲제2의 불확실성의 시대=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오늘 날의 시대는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다. 전 캐나다 은행 총재이자 저자인 스티븐 폴로즈는 과거 반복되었던 경기침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다가올 위기와 기회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시한다. 저자는 불확실한 <평사리·1만7000원>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로드맵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물가정보·1만7000원>

▲살아보니, 소행주=집 마련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족 같은 이웃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라 불리는 '소행주'는 전국에 19채가 있다. 공유하는 생활은 진화했으며 규칙은 더 엄격해졌다. 책은 1호 입주자 '노리'와 3호 입주자 '노을이'가 쓴 생활 관찰 에세이로 개성 넘치지 않은 품위 있는 입주자들의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평사리·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강아지 걸음으로=황선미 작가가 그린 소심한 아이 영재와 겁쟁이 예비 안내견 바론의 이야기. 저마다 고민을 안고 1년 동안 우정을 쌓으며 성장하는 이들은 정답 너머의 길을 찾아간다. 과정 영재는 반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론은 무사히 안내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창비·1만1000원>

신비한 유리구슬 속으로 빨려든다. 사람을 '벌거숭이'라고 부르는 모락모락 숲에 도착한 태풍은 원숭이들에게 납치돼 전시를 당하는데... <우리교육·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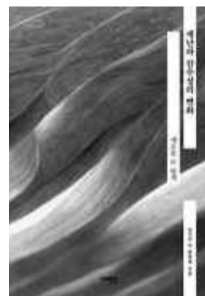
▲강태풍 실종 사건=태풍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아랑곳없이 행동하는 아이이다. 아침에 등교준비를 하다가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던 태풍은 심동이 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동물들을 괴롭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과학특성화중학교=네이버 웹툰 '닥터 언더터커 육아일기' 작가 닥터베르가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재미를 알려 주기 위해 집필한 과학 추리 소설 시리즈. 이번엔 출간한 3권 '쏟아지는 유성우 아래에 핀 소망의 소나무'는 수상한 퀴즈 게임을 둘러싼 2학년과 1학년의 대결을 그렸다. 과연 경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일까? <뜨인돌출판·1만3000원>

재난과 고통은 어떻게 인간을 미적 주체로 재구성하는가

재난과 감수성의 변화

아시아 미 탐험대 지음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가 4만 1000명(14일 현지시간)을 넘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939년 지진 피해(3만2968명 사망)를 훨씬 능가하는 튀르키예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지난 3년간 대두된 신조어 가운데 익숙해진 용어가 있다. 바로 '위드 코로나'였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긴 시간을 힘겹게 적응해야 했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위기의 국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재난에 대한 명징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재난과 감수성을 토대로 한 책이 발간됐다. 아시아 미 탐험대가 펴낸 '재난과 감수성의 변화'는 재난을 모티브로 한 예술가의 시선을 담았다. 백영서 연세대 명

예교수, 강태웅 광운대 교수 등 모두 9명의 책임 연구원은 재난이나 위기와 미의 관계를 묻는 8편의 글을 실었다. 각각이 대상으로 삼은 재난이나 위기의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재난은 이에 직면한 사람들의 감수성에 변화를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아시아적 폐허는 존재하는가'는 화가 모토다 히사하루를 다룬 글이다. 모토다는 폐허를 소재로 삼는데 그의 그림 'Indication: Shibuya Center Town'은 도쿄의 변화가 시부야 역 앞의 5거리를 다룬다. 그림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인다. 그림 속 시부야는 사람의 흔적이 없고 아무런 동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 그림은 서구의 폐허와 다른 동아시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서구에서는 폐허를 모티브로 전통과 미적 기적을 떠올리고 지속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동아시아에서는 인생과 권력의 무상 나아가 슬픔의 정조와 비극적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모토다의 그림은 서구 경향에서 비롯된 폐허를 시점으로 동양적 폐허를 그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통의 아포리아, 세상은 당신의 어둠을 회피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난(고통)은 어떻게 인간을 미적 주체로 재구성하는가'는 텍스트들을 비교 분석한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고통받는 인간의 상황을 들려준다.

"피 묻은 군복으로 행군하다 잠시 머문 폐허 속에서도 먼지 묻은 노란 모자를 끌어안고 잠이 들며(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극한 조건의 강제수용소에서 벽들을 쌓으면서도 자신이 정감하게 만든 돌담을 보며 만족하는 게 사람이다(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풍랑이는 밤바다의 구명보트에서도 검은 하늘을 찌는 수만 불트의 번개 불빛에 사로잡혀 탄성을 지르는 존재이며, 폭파 직전 망가진 우주선에조차 푸른 별 지구를 보며 아름다움을 감각한다(에드 아스트라, 그레비티)"

이처럼 책은 고통에 공감하는 예술가의 시선,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주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역설한다. "현재 지구인 모두가 절박하게 겪고 있는 팬데믹 재난 또한 새로운 감수성을 발양해 '더 아름다운 사람과 세상'을 추구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이 주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서해문집·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동광지점, 각학지점